

벚꽃 흐드러지는 4월 국악 한판 어때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이 좋다'

낙양춘·진도씻김굿 등 다채

1~29일 매주 토요일 공연

벚꽃이 흐드러지는 4월 소리의 고장 진도에서 조상의 얼을 오롯하게 느낄 수 있는 공연의 막이 오른다.

국립남도국악원은 27일 2023 국립남도국악원 토요일상설 '국악이 좋다' 4월 프로그램을 공개했다. 공연은 1일부터 29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린다.

4월 토요일상설의 첫 공연으로 1일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국악의 향연'이 펼쳐진다.

'봄', '처음'을 주제로 펼쳐지는 공연은 기악 합주 '낙양춘'으로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낙양춘은 낙양의 이른 봄날 떠나간 연인을 기다리며 밤을 보낸 여인의 마음이 담겼다. 두 번째 작품 심청가 중 '심청이 태어나는 대목'은 심청가의 첫 눈대목으로 객씨부인이 심청을 낳는 내용이

다. 이어 가야금 황병기 명인 작곡의 가야금독주곡 '술'과 여창가곡 '계락, 편수 대엽'을 선보인다.

또 봄날 꽃놀이를 하듯 호남지역을 유람하는 내용의 단가 '호남가'와 온갖 꽃을 모아두고 감상하는 심청가 중 '화초타령'을 가야금병창으로 연주한다. 이외에도 '포구락', '정우수류 벼들부 포놀이'가 펼쳐진다.

8일에는 류무용단 초청 공연 '상상(想像)하는 우리 춤'이 열린다. 전통과 현대의 만남을 주제로 전통춤을 색다르게 해석한 공연이다. 류무용단은 '상상(想像) 부채춤', '상상(想像) 강강술래' 등 새로운 시각의 전통무용을 선보인다.

15일에는 국립남도국악원 국악연주단의 레퍼토리 공연인 '진도씻김굿'을 만나 볼 수 있다. '진도씻김굿'은 생전 좋지 못했던 기억, 마음 깊은 곳의 앙금을 씻어줘 영혼이 수월하게 저승으로 건너갈 수 있게 돕는 굿이다.

22일에는 장애인 문화예술공동체 사람사랑 초청공연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준비했다.

통영오광대 '문동춤', 시각장애인 참빛누리꾼들의 '사물놀이'와 시각장애인 소리꾼 최예

나의 적벽가 중 '새타령'이 펼쳐진다. 아쟁연주자 김영길 명인과 김정만 명고의 특별공연도 만나 볼 수 있다.

29일에는 국수호 명무, 김덕수 명인, 문정근 명무, 서영호 명인을 초청해 기획공연 명인·명무전 '완생(完生)'을 선보인다.

서영호 명인의 '김일구류 아쟁산조'를 시작으로 김덕수 명인의 '장구 산조', 문정근 명무의 '전라삼현 승무', 국수호 명무의 '전라입춤'이 준비돼 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공연 전후 진도 읍내와 국악원을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를 제공한다. 또한,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을 위해 12월까지 공연 스탬프 쿠폰 이벤트를 진행해 참여한 관람객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점심 식사 후 국립남도국악원을 방문하면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진악당(공연장) 로비에서 실감형 콘텐츠를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남도국악원 홈페이지(<http://jindo.gugak.go.kr>), 또는 전화(061-540-4042)로 안내받을 수 있다. /이나라 기자



국립남도국악원은 4월 매주 토요일마다 대극장 진악당에서 다채로운 국악 공연을 선보인다. 사진은 오는 1일 예정된 낙양춘 공연.



국립남도국악원 레퍼토리 진도씻김굿 공연이 4월 15일 대극장 진악당에서 열린다.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전시 현장 /광산구 제공

광주시립미술관 아카데미 강좌 30일 개강 선착순 예약제 운영



이태호

광주시립미술관은 오는 30일 아카데미 강좌 '이태호 교수가 들려주는 우리 그림 이야기'를 개강한다. 강의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의 민중미술까지 한국미술의 모든 것을 탐구해 볼 수 있도록 총 8강으로 진행된다.

첫 강의를 '선사시대 미술과 한국화의 원형'이 주제다. 4월 27일에는 '고구려 고분벽화와 고려조선의 불화', 5월 25일에는 '조선 초상화, 궁중장식화와 민화' 강의 등이 펼쳐진다.

강의는 오는 10월까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2시 광주시립미술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강의는 매달 강좌가 시작되기 2주전 부터 미술관 홈페이지에서 60명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한다.

이 교수는 홍익대 회화학과 동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한 후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전남대 교수 등을 지냈다. /이나라 기자



영화 '장기자랑' 스틸컷

청년작가 4인4색 '이런 봄, 처음 봄'

내달 20일까지 소촌아트팩토리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에서 청년작가 초대전 '이런 봄, 처음 봄' 전시가 열리고 있다.

광산구 관내 대학 출신 20~30대 신진 청년 예술가들이 참여한 이번 초대전은 새로운 지역 예술가 성장과 발돋움에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김건(전남대), 민기쁨(조선대), 안진석(전남대), 유가은(조선대), 조성민(조선대) 등 참

여 작가 총 5명이 작품 50여 점을 전시한다.

다섯 명의 작가가 이번 단체전을 위해 빛을 활용해 직접 제작한 합작품도 전시장 중앙에 설치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전시는 4월 20일까지 진행된다. 소촌아트팩토리 큐브미술관 휴관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주 평일과 주말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료로 시민 누구나 관람할 수 있다. /최진화 기자

세월호 유가족 이야기 영화 '장기자랑' 시사회

오늘 광주독립영화관

광주독립영화관 GIFT는 오는 28일 오후 7시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장기자랑' 시사회를 개최한다.

영화 '장기자랑'은 세월호 참사 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극단 노란리본'의 세 번째 작품이다. 세월호 참사를 겪은 7명의 엄마들이 심리치유를 위해 시작한 연극에서 뒤늦은 재능을 발

견하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 아이들을 향한 기억을 이어가는 휴먼 다큐멘터리다.

상영 후에는 영화를 연출한 이소현 감독과 세월호광주시민상주모임 활동가 추말숙 배우가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한다.

영화 '장기자랑'은 제14회 DMZ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등 우수 영화제를 통해 소개되며 관객들의 호평을 끌어들였다. 영화는 오는 4월 5일 개봉한다. /이나라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알뜰한 정보! 행복한 신문!

전남매일

직장인 "흠술이 좋아요"... 외식업계 올상

인생의 지혜, 세상사된 화이

전남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취임식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추진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추진

광주광역시 '문화도시' 추진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게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사·군지사

광산지사	010-3601-1102	장흥지사	010-3613-6114
목포(갑)	010-3272-2765	강진지사	010-6646-1241
목포(을)	010-3635-6777	해남지사	010-8181-2627
여수지사	010-8648-1236	영암지사	010-4624-8409
순천지사	010-2547-7890	무안지사	010-3621-8989
나주(갑)	010-7706-2410	함평지사	010-3600-0500
나주(을)	010-3713-7458	영광지사	010-8666-2882
담양지사	010-8004-9885	장성지사	010-3666-1300
곡성지사	010-6764-6100	완도지사	010-5619-7020
구례지사	010-6636-3039	진도지사	010-3624-4777
고흥지사	010-9151-2828	신안지사	010-4627-1472
화순지사	010-3100-0386	보성지사	010-5259-6441

M 전남매일

본사 주소 : (우)61639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차로 398 (사동)
 기사제보 : T. 062-720-1050 / F. 720-1080 / jndn@chol.com
 광고문의 : T. 062-720-1017 / F. 720-1020 / jnm1000@hanmail.net